

진로탐색 집단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진로인식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배서윤** · 김현진***

초 록

본 연구는 진로탐색 집단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진로인식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B초등학교 5학년 3개 학급 총 69명을 대상으로 진로인식과 자아존중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후 세 학급은 각각 진로탐색 집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실험집단과 영어지도를 실시하는 비교집단과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은 통제집단으로 나누어졌다. 실험집단에게는 일주일에 두 번씩 6주의 총 12회기로 구성된 진로탐색 집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실험처치 후 집단 간 진로인식검사와 자아존중감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공변량 분석을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진로탐색 집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통제 및 비교집단에 비해 진로인식 전체 평균 점수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으며 하위요인 중에서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 영역과 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및 가치관 영역에서 증가를 보였다. 둘째,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과 비교집단에 비해 자아존중감 전체 평균 점수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으며 하위요인 중에서 일반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긍정적 자아존중감에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위의 결과를 통해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 대상의 본 진로탐색 프로그램은 그들의 진로인식의 증진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고학년 대상의 진로교육은 이후 본격적인 진로탐색의 중요한 기반이 되며 가정, 학교 및 사회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진로탐색 집단교육 프로그램, 자아존중감, 진로인식,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

* 이 논문은 석사학위청구 논문을 수정 정리한 것임.

**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

***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조교수, 교신저자, hjinkim71@gmail.com

I. 서 론

현대사회에서 자녀들의 미래의 진로에 관한 부모님과 교사들의 관심은 매우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시대는 우리로 하여금 고도의 지식과 첨단 기술을 습득하여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현대는 기술 산업의 발달로 직업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전문화 되어가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하에서 학생들의 적성, 재능 그리고 자신의 미래 비전에 대비하는 교육을 통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한 교육의 목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개개인이 보다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성격, 관심사, 적성 등을 바탕으로 하는 진로설정 및 진로지도가 필요하다(신선화, 2014).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은 진로지도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체계적인 지도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각 개인에게 맞는 진로를 파악하고 안내해주는 학교 내 조직과 체계적인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장순이, 2004). 지금까지 우리나라 진로교육은 주로 상급학교의 진학을 위한 진학지도에 치중하여 각 진로발달단계에서 요구되는 진로발달의 과업들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김형균, 2016). 부모들 또한 진로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면서도 주로 사교육 기관을 통해 자녀들의 진로를 탐색하고 학교는 진로상담 전문교사들을 두고 진로교육을 구체적으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스스로 진로를 선택하기보다 부모의 권유 또는 친구의 생각에 따르거나 영상(TV) 매체에서 주목받은 직업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진로발달이론을 정립한 Super(1953)와 Ginzberg(1961)는 개인차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교 저학년 시기에 해당하는 만11~12세를 흥미기로 정의하였다. 이전의 환상기에서 학생들은 현실여건이나 자신의 가능성에 대한 고려 없이 독단적으로 직업을 선택했다면, 흥미기에 들어가면서 비로소 학생들은 자신의 흥미를 중심으로 활동을 선택하게 된다. 이러한 흥미 중심의 활동은 이후 자신의 능력이나 가치, 현실적 요건을 고려하여 직업을 선택하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시기부터 서서히 진로와 직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가치를 형성하게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진로교육이 실시되어야할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김충기, 2000).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는 직접적인 직업 관련 활동을 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능력과 흥미에 높은 관심을 보인다. 그러한 관심과 흥미가 이후에 보다 현실적인 자신의 진로를 인식하고 선택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 다양한 학습활동과 체험 등을 포함하는 진로교육을 통해 진로인식의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김관규, 2003; Zunker, 2002).

진로교육 단계상 이 초등학교 시기는 진로인식(Career awareness)단계로 자아나 일 및 직업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이 형성되며, 진로의사결정 능력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시기이다(서우석, 도경순, 2002). 즉 초등학교 시기를 통해 아동·청소년들의 진로 인식의 과업이 달성될 필요가 있다. 진로인식은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과 직업의 가치와 종류 및 선택기준에 대한 소양을 갖추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신의 흥미와 능력을 살피고 일과 직업의 가치와 종류 등을 탐색하며 진로의 결정기준을 배우고 실행하는 경험이 필요하다(김충기, 2000). 최근 김형균(2016)의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교 학생의 진로인식의 수준은 성별, 지역별, 성적, 경제적 수준별, 부모의 학력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인식의 이러한 집단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에서의 체계적인 진로교육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반면 현재 초등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은 5, 6학년 실과 및 각 교과에서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며, 재량 활동 시간을 통하여 이전보다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하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흡하여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남은주, 2008).

초등학생 때 형성된 일의 의미와 자신이 원하는 직업에 대한 올바른 태도인 진로 인식의 발달은 또한 자신을 보다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아존중감과도 관련성이 있다(김미란, 2004). 즉 진로인식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자연스럽게 자신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Branden(1992)에 의하면 자아존중감은 우리의 삶에 필수적으로 가져야 할 경험으로 첫째, 자신에게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삶의 어려움에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스스로에 대한 신념이다. 둘째,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이며 자신이 필요하거나 원하는 것을 주장할 충분한 자격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또한 자신의 수고로 획득한 결과들을 즐길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느끼는 믿음의 정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은 자신이 능력 있고 중요하며, 가치 있는 존재라고 믿는 정도로서 자기 자신에 대한 지속적인 긍정적 자기평가이며, 가치판단이라고 정의된다(강재정, 2002). 자아존중감은 주변

환경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개념으로 아동·청소년의 경우 가정, 학교, 사회적 관계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지는 자신에 대한 느낌과 태도를 통해 드러날 수 있다고 본다(김은영, 2000; 최보가, 전귀연, 1993). 특히 초등학교 아동들의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은 그들의 학습 동기나 태도, 이후의 학업성취와 또래들과의 안정적인 대인관계 형성과 유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변인이라고 볼 수 있다(조성희, 김희수, 2016).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은 아동, 청소년들의 진로의식 발달과 높은 관련이 있어 보인다(김미란, 2004). 유준상과 서우석(2013)은 진로성숙과 심리적 변인인 자아존중감을 비롯한 자아관련 변인과의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들을 메타분석한 결과 자아존중감이 진로성숙과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가지는 것을 발견했다. 즉 자신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직업을 탐색하고 준비하고 직업을 얻고 은퇴하는 과정에서 인지 및 태도에 있어 보다 성숙하게 대처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은 자신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으며, 자신을 사랑하며 자랑스럽게 여기고 더 나아가 상대방도 소중한 존재로 깨닫게 된다. 또한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사람은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지며 다양한 직업적 시도와 선택을 한다. 반면에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사람은 사회적인 요구나 가족 등 주변 사람들의 기대 등과 같은 외적인 요소와 기준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자아개념과 일치하지 않는 직업 선택을 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Korman, 1967). 실제 허균(2012)의 연구의 따르면 중학교 2학년 학생들 중 자신의 진로결정시 확신의 정도가 낮고 진로결정에 어려움을 겪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Harter(1985)에 따르면 자아존중감이 비교적 안정되게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표출되는 시기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약 10세 무렵이다. 그에 따르면 아동기 중반이 되면서 아이들의 자아존중감은 안정화되고 현실에 적합하게 변화해가지만 주로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유지하게 된다. 그러나 11~12세의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그들의 자존감은 낮아지다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아동에게 있어 자아존중감은 전 생애에 걸친 다양한 문제의 해결과 인간관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은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타인과 자신을 자주 비교함으로써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는 경험을 하는 경우가 많다(남은주, 2008). 따라서 이러한 시기에 진로탐색 집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소그룹 활동을 통해 친구들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친구들과 구별되는 자신만의 독특성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진로인식의 발달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로교육 또는 진로상담 프로그램이 진로인식이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이 수행된 바 있다. 먼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교육 또는 진로상담 프로그램이 진로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로서 강인숙(2002)과 김임경(2001)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은 진로인식의 네 개 하위영역¹⁾ 중에서 일과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영역과 진로목표 설정과 전략 영역 점수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활동중심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수행한 이봉순(2001)의 연구에서는 자기이해, 일과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 일에 대한 긍정적 태도 및 가치관 그리고 진로목표 설정과 전략의 진로인식 모든 영역에서 효과가 있었다. 한편 유사한 활동중심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진행한 남은주(2008)의 연구에서는 자기이해, 일과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진로목표 설정과 전략의 세 영역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프로그램마다 진로인식에 미치는 효과도 조금씩 다르며, 몇몇 연구들은 진로인식의 일부 하위영역에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진로교육 및 상담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연구 중 본 연구와 동일한 측정도구를 사용한 연구를 살펴보면 김규진(2007)은 직업탐색중심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의 네 개 하위영역 중 학교학습에서 자신의 인지적 능력에 대해 갖는 자아상인 학교 자아존중감에서만 효과를 발견했다. 반면 유사한 진로탐색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 손순희(2012)는 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 모든 하위영역에서 효과를 보이는 것을 발견했다. 반면 장정숙(2005)은 활동중심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일반적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자아존중감에 효과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렇듯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가 일관적이지 않으며 일부 연구들은 자아존중감의 일부 하위영역에서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진로인식과 자아존중감 간에 깊은 관련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1) 진로인식 척도의 하위영역의 명칭이 연구마다 차이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자기이해, 일과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 일에 대한 긍정적 태도 및 가치관 그리고 진로목표 설정과 전략으로 단일화 하여 정리하였음.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진로인식과 더불어 자아존중감에 동시에 효과를 가지는 지 확인하고자한다. 또한 일부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의 일부 하위 영역에서만 효과를 보이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기존 진로탐색 집단교육 프로그램에 자기이해 영역을 강화시킴으로써 진로탐색 집단교육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진로인식과 더불어 자아존중감 수준을 향상시키는지 확인하고자한다.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들은 발달단계상 자존감이 낮아지는 시기에 있다. 따라서 그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진로탐색 집단교육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이해와 수용의 과정을 강화하여 진로인식 수준의 향상을 유도한다면 그들의 자아존중감도 함께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탐색 집단교육 프로그램이 그들의 진로인식과 자아존중감에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진로탐색 집단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진로인식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가?
2. 진로탐색 집단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자아존중감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서울시 소재 B 초등학교 5학년 3개 학급의 총 69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학생 중 영어지도를 실시하는 1개 학급 23명을 비교집단으로, 진로탐색 집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1개 학급 23명을 실험집단으로, 아무런 처치가 없는 1개 학급 23명을 통제집단으로 선정하였다.

표 1

연구대상의 집단구성

집 단	학 년	학 생 수		
		남	여	계
비교집단	5학년	11	12	23
실험집단	5학년	12	11	23
통제집단	5학년	12	11	23
전체 계		35	34	69

2. 연구도구

1) 진로인식 검사

진혜영(2005)이 개발한 진로인식 검사를 사용하였다. 총 문항은 37개 문항이며 자기 이해 10문항(예: “나는 나의 장점을 잘 알고 있다”), 일과 직업 세계의 이해 10문항(예: “나는 자격증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고 있다”), 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및 가치관 7문항(예: “어떤 직업이나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기 마련이다”), 진로 목표 설정과 전략 10문항(예: “장래 나의 직업은 내가 좋아하고 능력에 맞는 것이라야 한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검사의 응답은 Likert식 5단계 평정 척도로 이루어져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인식이 높은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하위 영역별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자기이해 .86, 일과 직업 세계의 이해 .77, 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및 가치관 .67, 진로 목표 설정과 전략 수립 .70이며, 전체 진로인식 수준은 .90이다.

2) 자아존중감 검사

Coopersmith(1967)의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최보가와 전귀연(1993)이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지는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 자기상을 의미하는 일반적 자아 6문항(예: “나는 결심하고 그 결심대로 밀고 나갈 수 있다”), 친구와 타인간의 관계에서 자신을 보는 사회적 자아 9문항(예: “나는 친구들이 많다”), 가정과 관련되는 가정적 자아 9문항(예: “나는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기분이 좋다”), 학교에서 적응에 관련되는 학교 자아 8문항(예: “나는 선생님이 설명할 때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의 4개의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검사에 대한 응답은 Likert식 5단계 평정척도로 이루어져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자아존중감 검사 도구의 하위 영역별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일반적 자아 .81, 사회적 자아 .90, 가정적 자아 .88, 학교 자아 .73, 전체 자아존중감 .92이다.

3) 진로탐색 집단교육 프로그램

본 연구의 진로탐색 집단교육 프로그램은 대전광역시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제작한 초등학생용 진로교육 프로그램(2002), 경기도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제작한 초등학교 진로지도 프로그램(2002)에서 초등학생의 진로의식의 성숙과 성취동기 향상과 관련된 내용으로 재구성하여 효과를 검증한 반효숙(2009)의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활용하였다.

반효숙이 재구성한 프로그램은 1회기에서 4회기까지 전반적인 자기이해 영역으로 자신의 성격, 흥미, 적성 등에 기초한 개인적 특성을 탐색하는 영역이며, 5회기에서 11회기까지는 직업에 대한 이해, 태도, 진로계획 등의 기본적으로 진로인식 향상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다. 본 진로탐색 집단교육 프로그램은 반효숙이 재구성한 11회기에서 자기이해 영역의 1회기를 더 추가하여 총 12회기로 구성하였다. 추가된 회기는 두 번째 회기인 ‘나의 장·단점 찾기’ 활동으로 기존의 진로탐색 및 진로교육 프로그램들에서 효과가 일관적이지 못했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데 목표가 있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표 2

진로탐색 집단교육 프로그램의 주요내용

영역	회기	목표	회기 제목	주요 내용
자 기 이 해	1	집단 구조화 및 친밀감 형성	프로그램 소개 및 자기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그램의 소개 및 규칙 설명 자기소개 하기 : 가족, 취미, 기뻐했던 일, 슬펐던 일 등 작성 후 조별 발표
	2	자신의 주체성과 자신감 회복	나의 장·단점 찾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신의 장·단점 찾기: 가정, 학교, 성격, 학습태도 등에서 자신의 장점과 단점 기록 기록한 장·단점을 소그룹으로 발표하기
	3	자신의 성격 파악 및 성격별 직업 탐색	나의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신의 성격 동식물에 비유하여 그림으로 표현하기 성격 검사하기 나의 성격 유형과 관련 직업 알아보기
	4	자신의 흥미 파악 및 흥미별 관련 직업 탐색	나의 흥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별로 흥미 비교 통해 흥미의 의미 알기 흥미검사 하기 자신의 흥미와 관련된 직업 알아 보고 공유하기
	5	자신의 적성 발견 및 적성별 직업 및 계열 탐색	나의 적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성의 의미 설명 11가지 적성 유형 확인 통해 적성과 직업관계 알기 나의 적성 알아보기 :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영역 기록 하여 조별 발표
직 업 이 해 · 태 도 · 가 치 관	6	직업의 종류와 하는 일 탐색	직업의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 및 주변 사람들의 다양한 직업 조사하기 조별 '직업 찾기 놀이'를 통해 직업 종류 이해하기
	7	직업세계의 변화 이해 및 미래 유망직종 파악	미래의 유망 직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인드맵 통해 직업의 변화 알아보기 옛날과 오늘날의 직업 비교하기 미래의 유망 직업 목록 통해 미래 직업 알아보기

영역	회기	목표	회기 제목	주요 내용
직업 이해 · 태도 · 가치관	8	직업의 가치와 직업 선택 기준 이해	직업 선택의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어진 사례에서 조별로 직업 가치 알아보기 직업 선택의 우선순위 생각해 보기
	9	일과 직업의 소중함 인식	일과 삶의 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업을 갖는 이유 등 직업의 소중함 나누기 세 가지 동물 비유를 통해 일의 가치 알아보기
진로 계획	10	의사결정의 단계 이해 및 단계 적용	합리적인 의사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활동지 통해 의사 결정 과정 5 단계 개념 알기 주어진 사례에서 합리적인 의사 결정 연습하기
	11	자신을 재탐색하여 잠정적 직업군 선택	나의 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신이 되고 싶은 사람의 유형 탐색하기 20년 후 자신의 모습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하기
마무리	12	프로그램의 의미 재음미	마무리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그램 평가 및 소감문 작성하기 전체 활동에 대한 생각과 느낌 나누기

3. 연구절차

본 연구의 독립변인은 진로탐색 집단교육 프로그램의 실시여부이며, 종속변인은 자아존중감과 진로인식 수준이다. 연구대상인 세 학급을 각각 비교집단과 실험집단 그리고 통제집단으로 설정하였다. 통제집단은 아무런 실험처치가 없었으며,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대상 처치는 모두 실험처치자인 책임 연구자에 의해 진행되었다. 비교집단은 프로그램 내용의 효과보다 학생들이 수업 외에 특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그들의 진로인식이나 자아존중감이 향상될 가능성을 통제하기 위해 형성된 집단이다.

본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진로탐색 집단교육 프로그램의 내용과 연구의 목적을 알렸으며, 사전검사로 세 집단을 대상으로 진로인식과 자아존중감 검사를 실시하였다.

실험집단은 진로탐색 집단교육 프로그램을 주 2회기로 6주 동안 총 12회기 실시하였으며, 비교집단은 영어지도를 주 2회기로 총 12회기 실시하였다. 한 회기의 시간은 40분이며, 실험처치는 2014년 11월 17일부터 12월 23일까지이다.

실험집단에게 진로탐색 집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 처치자는 2급 전문상담사(한국상담학회) 및 1급 진로상담전문가(한국진로상담협회)로서 진로탐색 집단교육 프로그램 실시 전에 타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에게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의 집단 상담을 주 2회기로 총 8회기 실시한 경험이 있다.

실험집단의 23명 학생들에게 각 회기마다 진로탐색 집단교육 프로그램의 활동내용을 설명하였으며, 활동지를 받은 학생들은 소집단별(5~6명)로 각자 작성한 내용을 중심으로 활동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서로 주고받게 하였다. 소집단 활동 후에는 각 소집단에서 2명씩 자발적인 발표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연구자의 활동 내용 설명을 듣고서 각 소집단별로 자신의 장단점, 성격, 흥미, 적성, 직업, 일과 삶의 보람, 꿈 등에 관하여 생각하고 탐색하는 과정과 발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비교집단에게 영어지도를 실시하게 된 배경으로는 학생들이 영어 단어 철자와 발음과의 상관관계 없이 무조건 스펠링을 외우는 것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에 기인한 것이다. 영어지도 내용은 발음 기호를 어떻게 발음하는가를 발생 기관의 그림을 활용하여 발음기호를 알파벳과 연관시켜 단어의 정확한 발음을 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수업으로 진행되었다.

4. 분석방법

본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자료처리는 SPSSWIN 18.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먼저 각 검사의 하위 요인별로 사전-사후 검사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한 후, 사전점수를 공변인으로 하고 사후검사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공변량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유의도 수준 .05에서 유의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진로인식 증진 효과 분석

진로인식에 대한 진로탐색 집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세 집단의 진로인식 사전-사후 검사의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수정된 평균을 산출한 기술통계 결과는 표 3과 같다. 하위 영역별로 결과를 살펴보면, 자기이해영역에서 비교집단과 실험집단 그리고 통제집단 모두 사전검사(M=4.02, 3.94, 3.87) 보다 사후검사에서 점수(M=4.08, 4.22, 3.88)가 높아졌다.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영역에서는 비교집단과 실험집단은 사전검사(M=3.80, 3.61) 보다 사후검사에서 점수(M=3.84, 4.20)가 높아졌으나, 통제집단은 사전검사(M=3.70) 보다 사후검사에서 점수(M=3.65)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및 가치관 영역에서 비교집단은 사전검사(M=4.06) 보다 사후검사에서 점수(M=3.71)가 낮아졌으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사전검사(M=3.84, 3.99) 보다 사후검사에서 점수(M=4.39, 4.08)가 높아졌으며 그 중 실험집단의 증가의 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 목표설정과 전략 영역에서도 비교집단은 사전검사(M=4.08) 보다 사후검사에서 점수(M=4.00)가 낮아졌으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사전검사(M=3.91, 3.81) 보다 사후검사에서 점수(M=4.18, 3.99)가 높아졌으며 실험집단의 증가의 폭이 더 컸다. 진로인식 전체에서는 비교집단과 통제집단은 사전검사(M=3.98, 3.83) 보다 사후검사에서 점수(M=3.80, 3.81)가 낮아졌으나, 실험집단은 사전검사(M=3.82) 보다 사후검사에서 점수(M=4.12)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집단별 진로인식 기술통계량

종속변수	집단	N	사전		사후		수정된 사후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오차
자기이해	비교반	23	4.02	.59	4.04	.70	4.08	0.12
	실험반	23	3.94	.64	4.23	.49	4.22	0.12
	통제반	23	3.87	.82	3.76	.70	3.88	0.12
	합계	69	3.94	.68	4.01	.66		

종속변수	집단	N	사전		사후		수정된 사후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오차
일과 직업 세계의 이해	비교반	23	3.80	.71	3.81	.69	3.84	0.12
	실험반	23	3.61	.55	4.05	.60	4.20	0.12
	통제반	23	3.70	.59	3.60	.56	3.65	0.12
	합계	69	3.70	.61	3.82	.64		
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및 가치관	비교반	23	4.06	.49	3.87	.59	3.71	0.11
	실험반	23	3.84	.42	4.42	.39	4.39	0.11
	통제반	23	3.99	.71	4.10	.50	4.08	0.11
	합계	69	3.96	.56	4.13	.54		
진로 목표 설정과 전략	비교반	23	4.08	.49	4.06	.50	4.00	0.13
	실험반	23	3.91	.47	4.12	.64	4.18	0.13
	통제반	23	3.81	.66	3.92	.48	3.99	0.13
	합계	69	3.93	.55	4.03	.54		
진로인식 전체	비교반	23	3.98	.48	3.95	.48	3.80	0.09
	실험반	23	3.82	.41	4.19	.39	4.17	0.09
	통제반	23	3.83	.61	3.82	.47	3.81	0.09
	합계	69	3.88	.51	3.99	.47		

이러한 기술통계에 얻어진 집단들 간의 평균의 차이가 유의미한 지를 검증하기 위해 세 집단의 진로인식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세 집단 간에 진로인식의 사후점수 공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를 살펴보면,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p < .01$), 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및 가치관($p < .001$), 진로인식 전체($p < .01$)에서 세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4의 사후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진로인식의 하위요인 중에서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 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및 가치관 그리고 진로인식 전체에서 실험집단이 다른 두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자기 이해와 진로 목표 설정과 전략에서는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결과적으로 본 프로그램은 자기이해와 진로 목표설정과 전략을 제외한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 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및 가치관 그리고 전반적인 진로인식 수준을 증진시키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진로인식의 사후점수 공변량분석

종속변수	소스	제공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 확률	Scheffe
자기이해	사전점수	13.82	1	13.82	44.88***	.00	a=b=c
	집단	1.35	2	.68	2.20	.12	
	오차	20.01	65	.31			
	합계	1172.00	69				
일과 직업 세계의 이해	사전점수	14.45	1	14.45	44.31***	.00	b>a,c
	집단	3.57	2	1.79	5.48**	.01	
	오차	21.20	65	.33			
	합계	1087.00	69				
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및 가치관	사전점수	2.39	1	2.39	8.15**	.01	b>a,c
	집단	5.27	2	2.64	8.98***	.00	
	오차	19.09	65	.29			
	합계	1162.00	69				
진로 목표 설정과 전략	사전점수	1.85	1	1.85	5.14*	.03	a=b=c
	집단	.52	2	.26	.72	.49	
	오차	23.37	65	.36			
	합계	1162.00	69				
진로인식 전체	사전점수	6.96	1	6.96	37.16***	.00	b>a,c
	집단	1.95	2	.97	5.19**	.01	
	오차	12.17	65	.19			
	합계	1085.00	69				

* $p < .05$, ** $p < .01$, *** $p < .001$, a=비교반, b=실험반, c=통제반

2. 자아존중감 증진 효과 분석

먼저 자아존중감에 대한 진로탐색 집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비교 집단, 실험집단, 통제집단의 사전-사후 검사의 평균과 표준편차, 수정된 평균을 산출한 기술통계 결과는 표 5와 같다. 하위영역별로 결과를 살펴보면, 일반적 자아존중감에서 실험집단의 경우 사전검사(M=4.01)보다 사후검사에서 점수(M=4.46)가 높아졌으나, 비교집단과 통제집단은 사전검사(M=4.03, 3.88)보다 사후검사에서 점수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M=4.02, 3.83). 사회적 자아존중감에서 비교집단과 통제집단의 경우 사전검사(M=3.64, 3.46)보다 사후검사(M=3.55, 3.43)에서 점수가 낮아졌으나, 실험집단의 경우는 사전검사(M=3.62)보다 사후검사에서 점수(M=4.29)가 높아졌다.

한편 가정적 자아존중감에서 비교집단, 실험집단 및 통제집단 모두 사전검사(M=4.14, 4.24, 3.94)보다 사후검사에서 점수(M=4.17, 4.48, 3.98)가 높아졌으며 그 중 실험집단의 증가폭이 가장 컸다. 학교 자아존중감에서는 비교집단과 실험집단은 사전검사(M=2.71, 2.86)보다 사후검사에서 점수(M=2.86, 2.87)가 약간 높아졌으나, 통제집단은 사전검사(M=3.02)보다 사후검사에서 점수(M=2.91)가 낮아졌다. 자아존중감의 하위영역을 통합한 자아존중감 평균점수 전체에서는 비교집단과 실험집단은 사전검사(M=3.62, 3.68)보다 사후검사에서 점수(M=3.63, 4.02)가 높아졌으나, 통제집단은 사전검사(M=3.56)보다 사후검사에서 점수(M=3.55)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집단별 자아존중감 기술 통계량

종속변수	집단	N	사전		사후		수정된 사후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오차
일반적 자아	비교반	23	4.03	0.75	4.05	0.68	4.02	0.12
	실험반	23	4.01	0.61	4.49	0.50	4.46	0.12
	통제반	23	3.88	0.59	3.78	0.79	3.83	0.12
	합계	69	3.97	0.65	4.10	0.72		
사회적 자아	비교반	23	3.64	0.76	3.59	0.78	3.55	0.11
	실험반	23	3.62	0.65	4.32	0.52	4.29	0.11
	통제반	23	3.46	0.83	3.36	0.79	3.43	0.11
	합계	69	3.57	0.74	3.76	0.81		

종속변수	집단	N	사전		사후		수정된 사후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오차
가정적 자아	비교반	23	4.14	0.62	4.19	0.56	4.17	0.10
	실험반	23	4.24	0.63	4.56	0.37	4.48	0.10
	통제반	23	3.94	0.86	3.88	0.87	3.98	0.10
	합계	69	4.11	0.71	4.21	0.69		
학교 자아	비교반	23	2.71	0.69	3.11	0.73	2.86	0.13
	실험반	23	2.86	0.72	2.91	0.65	2.87	0.12
	통제반	23	3.02	0.58	3.05	0.63	2.91	0.43
	합계	69	2.86	0.67	3.03	0.67		
자아존중감 전체	비교반	23	3.62	0.53	3.73	0.54	3.63	0.75
	실험반	23	3.68	0.49	4.07	0.37	4.02	0.75
	통제반	23	3.56	0.62	3.51	0.64	3.55	0.75
	합계	69	3.62	0.55	3.77	0.57		

이러한 기술통계에 얻어진 집단들 간의 평균의 차이가 유의미한 지를 검증하기 위해 세 집단의 자아존중감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세 집단 간에 자아존중감의 사후점수 공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6을 살펴보면, 학교 자아존중감을 제외한 일반적 자아존중감($p < .001$), 사회적 자아존중감($p < .001$), 가정적 자아존중감($p < .01$), 그리고 자아존중감 전체($p < .001$)에서 세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6의 사후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실험집단은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일반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가정적 자아존중감 그리고 자아존중감 전체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결론적으로 본 프로그램이 학교 자아존중감을 제외한 일반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가정적 자아존중감 및 전반적인 자아존중감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자아존중감의 사후점수 공변량분석

종속변수	소스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 확률	Scheffe
일반적 자아	사전점수	8.87	1	8.87	27.76***	.00	
	집단	4.86	2	2.43	7.61***	.00	b>a,c
	오차	20.77	65	.32			
	합계	1197.18	69				
사회적 자아	사전점수	13.65	1	13.65	45.73**	.00	
	집단	9.99	2	5.00	16.73***	.00	b>a,c
	오차	19.41	65	.30			
	합계	1019.35	69				
가정적 자아	사전점수	12.44	1	12.44	57.14***	.00	
	집단	2.83	2	1.42	6.50**	.00	b>a,c
	오차	14.15	65	.22			
	합계	1253.62	69				
학교 자아	사전점수	28.14	1	28.14	682.78**	.00	
	집단	.03	2	.01	.32	.73	a=b=c
	오차	2.68	65	.04			
	합계	603.36	69				
자아 존중감 전체	사전점수	9.32	1	9.32	72.70***	.00	
	집단	2.88	2	1.44	11.24***	.00	b>a,c
	오차	8.33	65	.13			
	합계	981.10	69				

* $p < .05$, ** $p < .01$, *** $p < .001$, a=비교반, b=실험반, c=통제반

IV. 논의 및 결론

1. 진로탐색 집단교육 프로그램이 초등 고학년의 진로인식에 미치는 효과

본 연구에서 적용한 진로탐색 집단교육 프로그램은 자기이해와 진로 목표 설정과 전략의 영역을 제외한 일과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와 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가치관 그리고 전체 진로인식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방식의 진로탐색 집단교육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진로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예: 남은주, 2008; 윤경희, 2003; 이봉순, 2001)의 결과와 유사하다.

진로인식은 진로발달 과정에서 개인이 일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고 진로선택의 중요한 준거를 알게 되며, 다양한 직업에 대한 기본 소양을 갖추는 것으로 정의되며 발달단계상 초등학생 시기에 형성될 필요가 있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김충기, 1986).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는 주로 자신의 흥미에 근거하여 직업을 생각하며 생활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직업의 종류가 제한적이고 구체적으로 탐구할 기회가 부족한 편이다. 이에 본 진로탐색 집단교육 프로그램은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확인하고, 그런 직업을 갖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 기본 자격, 직업의 가치를 생각해 보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어느 정도 진로인식의 기반을 다지는데 기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진로탐색 집단교육 프로그램이 진로인식의 하위영역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본 프로그램은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 영역과 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가치관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먼저 진로인식의 영역 중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는 다양한 일과 직업의 종류와 특성, 직업조건, 미래의 전망 등을 인식하고 이러한 이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적합한 직업을 선택하게 되는 진로의 지식 영역을 다루고 있다. 기존의 거의 모든 진로교육 프로그램 연구들이 일과 직업의 이해영역에서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직업에 대한 지식을 확대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예: 강인숙, 2002; 김임경, 2001; 이봉순, 2001).

또한 본 프로그램은 세상에 존재하는 일들은 모두 나름의 가치가 있으며 개인이 그 일들을 통해 보람과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영역인 일에 대한 긍정

적인 태도와 가치관을 증진시키는데 유의미하게 기여했다. 일부 진로탐색 프로그램들(강지유, 2010; 남은주, 2008)은 이 영역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지 않는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프로그램의 경우 직업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과 태도를 높일 수 있는 직업의 선택기준과 일과 삶의 보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두 개의 주차(8회기: 직업선택의 기준, 9회기: 일과 삶의 보람)로 인해 관련 영역이 더욱 강화되어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본 프로그램에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대상화시켜 볼 수 있는 능력과 자신을 돌아보는 자기이해 영역에서는 실험집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지만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자기 이해를 높인다는 결과를 보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찾아보는 자기이해 활동을 추가했음에도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높은 점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자신의 장점, 소질, 흥미, 적성 등을 이해하여 진로인식으로 변화시키기에는 6주의 단기간의 프로그램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장기적인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아동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기이해 변화를 경험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본 프로그램은 진로 목표 설정과 전략영역에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 영역은 아동들이 자신의 미래의 희망과 꿈을 세우고, 그 희망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을 계획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장래 자신의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 자신의 적성, 흥미, 능력, 성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는데 아직 자기이해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비록 본 프로그램이 자기이해와 진로목표설정 및 전략에 직접적인 효과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본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진로인식 전반에 걸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초등학교 고학년의 진로교육을 위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진로탐색 집단교육 프로그램이 초등 고학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본 연구에서 진행한 진로탐색 집단교육 프로그램은 학교 자아존중감을 제외하고 일반적, 사회적, 가정적 자아존중감 그리고 전체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접근의 진로탐색 집단교육 또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킨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들(예: 남은주, 2008; 손순희, 2012; 이경숙, 2003)과 맥락을 같이한다.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자신에 대한 평가로 자신에 대한 수용정도를 나타내며, 자신이 능력이 있고, 가치 있으며, 성공적인 존재라고 믿는 정도를 말한다(Coopersmith, 1967). 진로탐색 집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주변 환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는 진로탐색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장·단점 찾기와 성격, 흥미, 적성 등을 확인하여 자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경험을 했기 때문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반효숙(2009)이 구성한 11회기에 나의 장·단점 찾기를 1회기로 추가하여 총 12회기로 실시하였다. 추가한 회기는 자신의 현재 상태를 스스로 점검하여 자신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이를 발견하는 활동으로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보다 구체적으로 진로탐색 집단교육 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의 하위영역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본 프로그램은 일반적, 사회적, 가정적 자아존중감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즉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자신에 대해 갖는 자아상과 가정 상태에 관한 자신의 느낌과 태도 그리고 동료, 기타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에 대한 태도가 향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장정숙(2005)의 활동중심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일반적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킨 것보다 더 많은 영역에서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자아존중감의 모든 영역에서 효과를 보였던 손순희(2012)의 연구결과와 달리 학교 자아존중감에서는 효과를 보이지 못했다.

먼저 진로탐색 프로그램은 주로 자신에 대한 이해와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 및 진로계획에 초점을 두고 있음에도 가정과 사회적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자신과 자신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과 태도가 가족과 타인에 대한 관계인식과 태도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프로그램의 경우 장정숙(2005)의 프로그램에 비해 자기이해 활동이 많으며 자신의 적성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가족들로부터 인정받는 부분을 기록하는 활동과 가족의 직업을 탐색하는 활동을 통해 가정적 자아존중감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본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학교 학습에서 자신의 인지적인 능력에 대해 갖는 자아상인 학교 자아존중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표 5의 기술

통계 결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험집단은 자아존중감의 다른 영역들에서는 다른 집단에 비해 급격하게 향상되었다. 그러나 학교 자아에서는 모든 집단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간씩 향상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의 모든 영역에서 효과를 보였던 손순희(2012)의 연구와 비교해보면 본 프로그램의 경우 학교공부와 연결된 활동이 없는 반면 손순희(2012)의 프로그램에서는 교과공부와 직업을 연결하는 활동이 학교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진로교육 프로그램은 학업적 영역과는 구분되는 영역으로 학교 자아존중감의 향상에는 크게 기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초등학교 5학년은 발달단계상 자아존중감이 하락하는 시기임에도 본 연구결과에서 일반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가정적 자아존중감 그리고 자아존중감 전체 평균이 높아진 것은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진로탐색 집단교육 프로그램은 실험집단인 초등학교 5학년 아동들에게 있어 자신과 관련 있는 요인들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자신에 대한 이해와 만족감을 높이고 이를 통해 자아존중감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향상시켰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진로탐색 교육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의 향상에도 기여함으로써 진로에 대한 인식의 발달과 자아존중감이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의 몇 가지 시사점을 가진다. 첫째 초등학교 시기에 그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그들의 진로발달단계에 맞는 과업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초등학교생들의 발달 수준에 맞는 진로교육의 개발이 더욱 필요하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생들에 맞는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실시를 통하여 그들의 진로인식의 수준을 높였다. 진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은 자신의 성격과 특성을 파악하고 자신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올바른 진로를 인식하고 선택하게 된다. 즉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더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으며, 자신의 선택에 보다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그들의 인지적 특성과 진로 발달적 특성에 맞는 구체적이고 다양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은 중학교의 진로교육과 연계되어 더욱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공교육기관인 초등학교에서 교과수업, 재량수업, 특별활동, 방과후 활동 등을 통해 수준 높고 다양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재구성하거나 개발하여 제공한다면 지역

이나 경제적 격차와 같은 환경적 제약으로 인한 불공평한 진로교육 기회의 문제를 극복하고 모든 학생들의 진로인식의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대적으로 학업적 부담이 적은 초등학교 시기에 방과후 활동시간이나 특별활동 시간을 통해 다양한 진로탐색 활동을 제공한다면 보다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그룹으로 진행되는 진로탐색 집단교육 프로그램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을 이해하고 이후 중요한 사회구성원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함께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진로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의 증진에도 기여를 한다. 진로발달은 자아존중감의 향상과 깊은 관련성을 가지며 높아진 자아존중감은 또한 개인이 이후의 직업탐색과 직업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더욱 풍요롭고 만족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초등학교생들은 자신을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자신에 대한 확신이 강할수록 학교생활과 또래관계에 있어서 잘 적응할 수 있게 된다. 아동기는 심리발달 단계로 볼 때 자아에 대한 신념과 태도가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형성된 자아존중감은 이후의 진로선택 뿐만 아니라 학업과 대인관계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가 자아존중감이 다소 감소하기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본 프로그램은 그 시기 자아존중감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더불어 진로 프로그램이 단순히 자신에 대한 가치 인식뿐만 아니라 사회관계 및 가족 관계 속에서의 자신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다는 면에서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진로인식과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진로탐색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더욱 높였다고 할 수 있다.

2016년부터는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의 전면적인 실시로 우리나라 진로교육이 더욱 체계화되는 전환점을 맞게 된다. 이러한 시기적 상황에서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들에게 진로탐색 집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높아진 진로인식 수준과 더불어 향상된 자아존중감은 이후 성공적인 직업선택과 수행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본다. 앞으로는 진로교육의 실시가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부터 고학년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체계화하여 중학교의 자유학기제와 같은 유형으로 발전하게 된다면, 초등학교 고학년에서는 상급학교 진학을 앞두고 보다 더 심층적인 진로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의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초등학교 5학년

중 세 학급(69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효과를 검증하였으므로, 이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 5학년 아동에게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더 많은 다수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 프로그램은 주로 활동지를 통하여 교육하는 방식으로서 아동들의 흥미를 폭넓게 파악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었다. 특히 본 연구결과에서 자기이해를 비롯한 일부 진로인식의 하위영역에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지 않았는데 프로그램의 활동이 아동들이 보다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역동적이고 다양한 활동들로 다양하게 구성한다면 보다 높은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기대해본다. 아동들의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 인터넷 및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 프로그램이 단기간에 학교 내에서 실시되었기 때문에 참가한 아동들이 직업세계를 이해하는데 시간적인 제한이 있었으며 체험 또한 부족하였다. 최소한 한 학기 이상의 프로그램 실시 기간을 갖고, 직업세계를 직접 탐색하며, 경험할 수 있는 현장체험학습으로 구성되면 더욱 효과적인 집단교육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프로그램 이후에 지속적인 추후 교육으로 연결되어지는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심층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인숙 (2002).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진로인식 및 자아개념과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안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강지유 (2010). **초등학생의 진로인식 및 진로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자기 주도적 진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검증**.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강재정 (2002). **MMTIC 성장프로그램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경기도교육과학연구원 (2002). **초등교육 진로지도 프로그램**. 경기: 경기도교육과학연구원.
- 김규진 (2007). **직업탐색중심 진로교육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효과**.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미겸 (1999). **심성계발 프로그램이 아동의 자아 존중감 향상과 교우관계 형성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미란 (2004). **초등학교 아동들의 진로인식 수준과 자아존중감과 관계 연구**. 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은영 (2000). **자기성장 프로그램이 부적응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임경 (2001). **진로지도 프로그램 적용이 초등학생의 진로인식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충기 (1986). **진로교육과 진로지도**. 서울: 배영사
- 김충기 (2000). **진로교육과 진로상담**. 서울: 동문사
- 김관규 (2003). **진로집단상담에서 MMTIC 활용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진로인식에 미치는 효과**.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형균 (2016). **초등학교 학생의 진로인식에 대한 연구**. *실과교육연구*, 20(4), 237-257.
- 남은주 (2008). **활동중심 진로지도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진로인식에 미치는 효과**.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대전교육과학연구원 (2002). **초등학교 창의적 재량활동 지도자료(하)**. 대전: 대전교육과학연구원.

- 반효숙 (2009). **진로집단상담이 초등학생의 진로의식 성숙 및 성취동기 향상에 미치는 영향**.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서우석, 도경순 (2002). **초등학교 진로교육의 논리와 실제**. 한국진로교육학회 학술대회 발표 자료집(pp 1-33). 서울: 한국진로교육학회.
- 손순희 (2012).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진로의식도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신선화 (2014). **다중지능이론에 기초한 진로교육프로그램이 학습부진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진로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경숙 (2003). **자기주도적 집단진로탐색 프로그램이 진로성숙도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대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봉순 (2001). **활동중심 진로지도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진로인식에 미치는 효과**.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유준상, 서우석 (2013). 진로성숙과 심리적 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진로교육연구**, 26(3), 165-183.
- 윤경희 (2003). **교과중심의 진로교육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진로인식에 미치는 효과**.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장순이 (2004). **활동중심 진로지도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진로성숙에 미치는 효과**. 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장정숙 (2005). **활동중심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진로의식성숙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성희, 김희수 (2016). 초등 고학년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또래애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5), 355-376.
- 진혜영 (2005). **진로인식 향상을 위한 초등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보가, 전귀연 (1993). 자기존중감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1). **대한가정학회지**, 31(2), 41-54.
- 허균 (2012). 자아존중감과 진로장벽의 자기회귀 교차지연 효과분석. **취업교육연구** 13(1), 119-130.
- 허미란 (2013). **자아존중감 및 통제소재와 환경행동의 관계: 초등학교 5, 6학년을 중심**

으로, 서울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Branden, N. (1992). *The power of self-esteem*. Deerfield Beach, FL: Health Communications.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W. H. Freeman.

Ginzberg, E. (1961). *Career maturity inventory: Theory to a general theor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Harter, S. (1985). Cognitive-development processes in the integration of concepts about emotion and the self. *Social Cognition*, 4, 119-151.

Korman, A. K. (1967). Self-esteem as a moderator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perceived abilities and vocational choic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51, 65-67.

Super, D. E. (1953). A theory of vocational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8, 185-190.

Zunker, V. G. (2002). *Career counseling: Applied concepts of life planning*. Pacific Grove, CA: Brooks & Cole.

ABSTRACT

The effects of a career exploration group education program on career recognition and self-esteem amongst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their senior years

Bae, Seoyoon* · Kim, Hyunji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effects of a career exploration group education program on career recognition and self-esteem amongst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their senior years. For this purpose, a total of 69 fifth-graders from three classes at B Elementary School in Seoul were tested for career recognition and self-esteem. The three classes were divided into an experimental group participating in a career exploration group education program, a comparison group taught English, and a control group provided with no treatment. The experimental group was provided with a career exploration group education program over a total of 12 sessions-two sessions a week-for six weeks. After the experimental treatment, an inter-group test was performed for career recognition and self-esteem. The results of the ANCOVA test are as follows: First, the program was effective in improving their understanding of work and the job world and positive attitudes towards and values of work among the sub-factors of career recognition. Second, the career exploration group education program was effective in improving general self-esteem, social self-esteem, and family self-esteem among the sub-factors of self-esteem. It was also effective in improving understanding of work and the world of employment and positive attitudes towards and values of work among the sub-factors of career recognition.

Key Words: career exploration group education program, self-esteem, career recognition, higher graders in elementary school

투고일: 2016. 6. 3, 심사일: 2016. 9. 8, 심사완료일: 2016. 9. 22

* Seoul Cyber University